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 오늘 KIA-한화 준플레이오프 마지막 승부

젊은 패기인가 '허리 싸움' 노장 경험인가

〈한 기 주〉

〈윤 석 민〉

삼성 PAVV 2006 프로야구

KIA 이상화(26)와 한화 송진우(40)가 벼랑 끝에서 만난다. 그리고 그 뒤를 KIA는 '젊은 어깨' 한기주와 신용운,윤석민을, 한화는 '베테랑' 최영필과 정민철, 구대성을 배치했다.

KIA는 11일 대전구장에서 벌어지는 2006 준플레이오프 3차전 선발투수로 이상화를 내보낸다. 이에맞서 한화는 송진우를 예고했다.

결국 '영건'과 '베테랑'의 어깨에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가 달린 셈이다.

이상화-송진우 선발 대결

중간 계투진 승부 변수로

KIA전서 3차례 등판해 1승1패 방어율 5.25로 평균 자책점을 크게 웃돌고 있다.

KIA 타자들도 송진우만 만나면 0.286의 고감도 방망이를 뽐낸다.

특히 발이 빠른 톱타자 이용규와 중심타선 장성호는 각각 5타수 3안타로 불꽃타를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날 맞대결은 선발보다는 불펜진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정환 KIA감독은 "단기전에선 선발 투수란 개념보단 첫번째 투수란 표현이 적절하다" 면서 "선발이 흔들리면 곧바로 불펜진을 총 가동하는 승부수를 띄울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

김인식 한화 감독도 "선발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다"면서 "마지막 싸움으로 생각하고 모든 투수들을 동원할 생각" 이라고 맞섰다.

따라서 3차전은 두 팀의 불펜진 교체 시기 등을 지켜보는 게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양팀의 불펜은 각기 뚜렷한 색깔을 지니고 있는데 선발진과 마찬가지로 '젊은 피의 힘'과 '노장의 노련미'로 구별된다.

KIA는 신용운(23), 한기주(19), 윤석민(20) 등 젊고 힘있는 불펜진을 자랑한다.

특히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이름값을 하고 있는 '10억팔' 한기주는 불펜의 핵심이다.

반면 한화는 최영필(32), 정민철(34), 권준헌(35), 지연규(37), 구대성(37) 등 베테랑 불펜진의 노련미가 돋보인다.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이 걸린 마지막 승부에서 만난 KIA와 한화의 이번 대결은 젊은 피의 힘과 노장들의 경험 싸움으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승자는 오는 13일부터 정규시즌 3위팀인 현대와 플레이오프 5연전을 치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구 대 성〉

〈최 영 필〉

신용운·한기주·윤석민 등 20대 '영건' 대기

구대성·최영필·정민철 등 노련미로 승부

우선 이상화는 포스트시즌 진출 경험이 전무한 3년차의 신인급 투수지만 유독 한화에 강한 모습이다.

올 시즌 5승6패(방어율 3.87)를 기록한 이상화는 한화전 7경기서 20.1이닝 동안 5자책점으로 1승을 따냈고 방어율도 2.21로 낮다. 한화 타자들도 이상화를 만나면 평균 팀타율 0.167로 '선풍기' 만 돌려댔다.

상대 타선의 '주포' 김태균도 이상화를 상대로 9타수 무안타의 빈타에 시달렸고 중심타선의 데이비스(6타수 1안타), 한 방에 강한 이범호(7타수 1안타)도 맥을 추지 못했다.

반면 송진우는 포스트시즌에만 23경기에 나서 5승8패 방어율 4.62를 기록한 백전노장이지만 올해 KIA전의 성적은 신통치 않다.

8승8패(방어율 3.60)의 시즌성적을 낸 송진우는

LPGA '별들의 파티' 열린다

삼성월드챔피언십 13일 개막

소렌스탐·오초아 등 20명 출전

위성미 3년 연속 초청 선수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올스타전'인 삼성월드챔피언십이 13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캘리포니아주 팜데저트의 빅혼골프장 캐년코스(파72·6천645야드)에서 열린다.

삼성월드챔피언십은 200여 명이 넘는 LPGA 투어 선수 가운데 단 20명만 출전할 수 있고 이들은 컷오프없이 4라운드 경기를 치러 상금 87만5천만 달러를 나눠 갖는다.

총상금 규모는 '보통대회'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출전 선수가 20명에 불과해 우승상금은 21만8천750달러에 이르며 꼴찌를 해도 1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받는다.

출전 자격은 올해 4개 메이저대회 우승자와 시즌 상금랭킹 상위 선수, 그리고 유럽여자프로골프(LET) 상금 1위 선수에 단 1명의 초청 선수 등으로 제한된다.

1명 뿐인 초청 선수 몫은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3년 연속 차지했다.

미셸 위는 작년 이 대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프로 데뷔전을 가졌으나 실격을 받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대회도 초점은 일단 미셸 위에게 모아질 전망. 그러나 LPGA 투어 상금랭킹 1~3위에 나란히 포진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카리 웹(호주),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등 '빅3'의 우승 경쟁도 볼만하다.

또 시즌 10승을 미루고 미뤄온 '코리언 파워'가 이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 지도 관심사이다.

특히 2년 만에 이 대회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박세리(29·CJ)의 재기 샷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별들의 파티'답게 출전 선수 면면은 화려하다. 올해 4개 메이저대회를 제패한 웹, 소렌스탐, 박세리, 그리고 셰리 스테인하워(미국)에 상금랭킹 1위 오초아가 먼저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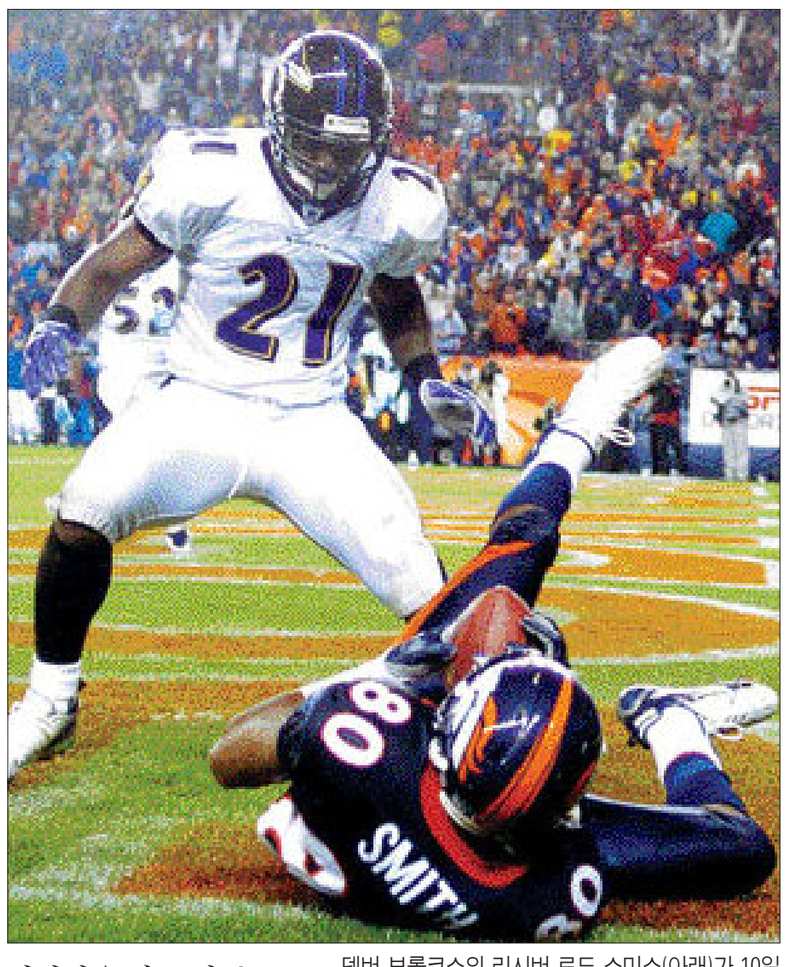
상금 4위 크리스티 커(미국), 5위 김미현, 6위 줄리 잉스터(미국), 7위 팻 허스트(미국), 8위 장정(26·기업은행), 9위 한희원(28·휠라코리아), 10위 폴라 크리머(미국), 12위 브리타니 린시컴(미국), 14위 나탈리 걸비스(미국), 16위 이미나(25·KTF), 18위 스테이시 프라나마수드(미국), 19위 소피 구스타프손(스웨덴) 등은 한결같이 LPGA 투어에서 맹활약을 펼친 강호들이다.

게다가 아마추어 시절부터 이 대회에 초청 선수로 출전해온 위성미에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대표로 뽑힌 글라디스 노체라(프랑스)도 이름값이 만만치 않다.

이들 20명의 출전 선수가 LPGA 투어에서 수집한 우승컵만 228개에 이르고 메이저대회 우승도 41회나 된다. 올해 열린 27차례 대회에서 25승이 이번 대회 출전 선수 손에서 이뤄졌다.

20명 가운데 우승 후보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셈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터치다운 패스 성공 덴버 브롱코스의 리시버 로드 스미스(아래)가 10일 콜로라도에서 열린 미국프로풋볼(NFL) 정규시즌 볼티모어 라벤스와의 경기에서 터치다운 패스를 받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나상욱 PGA투어 복귀

프라이스닷컴 오픈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무대 '한국의 영건' 나상욱(22·코오롱)이 새로운 각오로 투어에 복귀한다.

나상욱은 오는 12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서머린TPC(파72·7천243야드)와 캐년스TPC(파71·7천193야드)에서 총상금 400만 달러(우승상금 72만달러)를 내걸고 열리는 프라이스닷컴오픈에 출전한다.

2개 코스에서 1,2라운드를 번갈아 치르는 이번 대회에는 상금 랭킹 2위인 짐 퓨릭(미국) 외에 지명도 높은 인물이 거의 출전하지 않아 나상욱의 선전을 기대할만 하다.

특히 나상욱은 정규 투어 복귀에 앞서 출전한 PGA 2부 네이션와이드투어 마크 크리스토퍼 채러티 클래식에서 9일 '와이어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 정상의 샷 감각을 되찾았음을 알렸다.

1월에 손가락을 다친 나상욱은 지난 4월 셀휴스턴오픈에 출전했다가 기권한 뒤 PGA 투어에 일종의 병가인 '메디컬 익스텐션'을 제출하고 부상 치료와 함께 몸 만들기에 전념해왔다. 지난 달 말 국내대회인 코오롱·하나은행한국오픈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샷 감각을 점검했던 나상욱은 6개월만에 PGA 정규 투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 몸과 마음을 새로 가다듬었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